

국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관리 개선 방안 개발

Development of the improved Ex-post manage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in Korea

윤 호 준* 최 재 호** 오 종 원***
Yoon, Ho-Jun · Choi, Jae-Ho · Oh, Jong-Won

요 약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을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민간합동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사후적관리(Ex-post management), 자금재조달(Re-financi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하 SOC)시설에 건설부분 측면 민간자본의 참여와 운영부분 측면 선진 경영방식 및 관리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의 경우도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하 PF)방식이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PF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공항, 항만,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예산 및 재정규모 추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황선웅, 2006) 이에 정부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기존 SOC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 2008)을 마련하여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및 재무투자자 등 투자주체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 등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민간투자시설의 사후적관리 체계 도입 증가에 따른 민간투자를 보다 성숙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사후적관리 체계에 대한 원칙, 절차 및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익공유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추가이익을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비용 축소 등에 사용함으로써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시설에 대한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정부재정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졌다.

2007년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300건이 넘게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져 왔으며, 그 중 많은 사업이 운영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영단계에 진입한 사업들에 대해 사후적관리 방안의 도입이 위 목적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후적관리 도입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사후적관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일반회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jun810512@nate.com

** 일반회원,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토목공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jaechoi@dau.ac.kr

*** 비회원,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토목연구담당 책임연구원,
토목구조기술사, jwoh28@empal.com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일컫는 사후적관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사후적관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후적관리가 도입된 국가들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사후적관리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도입되어 지지 않은 원인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사후적관리의 정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사후적관리의 정의를 확립하고, 사후적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한다.

사후적관리(Ex-post Management)는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도입되기 이전 타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어져 왔는데, 경제학에서는 “수출승인을 받은 금액이 모두 수출되어 수출대금이 회수 되었다” 확인하는 업무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또한 조세학에서는 “정부가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이전에 실시하였던 약정이나 계약 등이 잘 이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사후적관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후적관리는 초기협약(실시협약)이후 초기협약의 이행결과 뿐만 아니라 건설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자금제조달, 추가재협상 등의 추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기 건설된 시설의 수익 증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관리방법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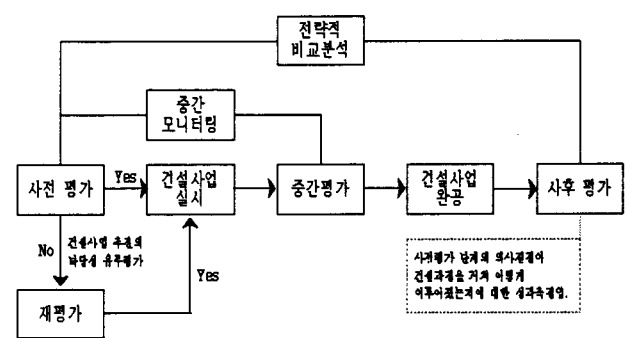
표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

용어	개념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시설인 도서관, 대학 학생회관 및 기숙사, 도로, 터널, 공항, 철도, 복지시설 등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자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부외금융)
민간합동투자사업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를 통한 기존의 조달과 완전 민영화 사이에 속하는 다양한 대체구조 중 하나
민간참여	협회의 개념 : 민간이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 등을 통해 공공사업에 참여 광의의 개념 : 직접적으로 사업 주체로서 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
자금제조달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 내지는 타인자본 차입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추가재협상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허기간이나 국가보조금 비율 등 초기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협상
통합운영시스템	보수관리, 요금정수시스템 등 민간합동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적은 운영비용과 더 높은 효율성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그 밖의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후평가 개념과 비교해보면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산업 효율화 종합대책(97.01)”을 통해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5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3~5년 이내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그림1. 건설사업 평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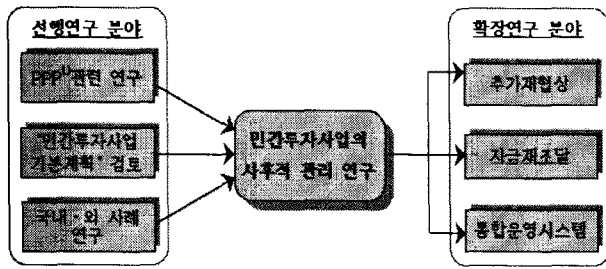
(출처: 이두현, 2007)

여기에는 공사비, 공사기간 및 수요·기대효과의 예측치와 실적치의 비교분석, 당해 건설공사 수행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호응도 등으로 운영단계에서의 수익증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포함되어진 사후적관리의 개념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어져 있다. 최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07.12.28)”에서도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적치를 서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2.2 선행연구 검토

아래 그림2와 같이 선행연구 분석결과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후적관리에 관한 연구는 영국, 호주 등 건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사후적관리 방안 연구가 자금제조달과 관련된 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례 역시 자금제조달로 인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졌다. 자금제조달의 사후적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추가재협상 및 통합운영시스템 도입 등의 활용사례를 분석한 논문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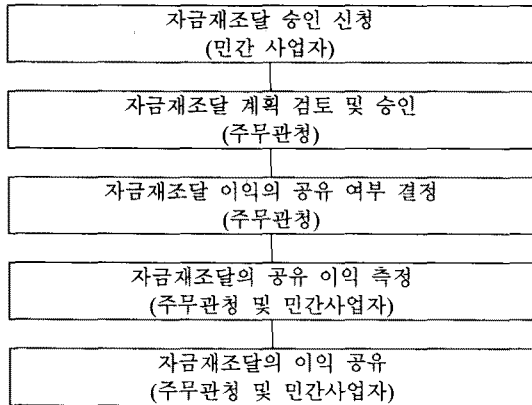
그림2.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및 확장연구의 도식화



1)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간합동투자사업

국내의 경우 또한 사후적관리의 적용사례가 제한적이었으며,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 중 3건 모두에 사후적관리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졌으며, 몇몇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추가재협상으로 자금재조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금재조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기획예산처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하여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지켜야할 절차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이익 공유 규정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추가이익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추가이익의 공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와 같은 점이 사후적관리의 적극적 도입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3. 자금재조달의 시행절차 예시



(출처: 한국건설관리연구원 <http://www.cenik.re.kr>)

또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관리에 자금재조달 외의 다른 사후적관리 방안인 추가재협상의 실시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추가재협상을 또 다른 사후적관리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보단 자금재조달을 하기 위한 협상 정도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재조달 없이 초기계약 변경 등과 같이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추가재협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재조달이 추가재협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3. 국내·외 사후적관리 적용 실태분석

3.1 호주의 사후적관리 실태

호주의 민간투자사업은 호주 정부의 재정부족이 확대됨에 따라 10여년전부터 국방 외 여타 다른 부분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웃소싱(Outsourcing)방식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 외부투자방식이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부문 투자에는 BOT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정부투자금의 부족분을 해결하여 왔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사후적관리방식이 도입되어 졌는데 이는 초기 투자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졌으며, 세부규정 및 정부와 민간투자자간의 책임소재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몇몇 대형 PPP사업에 현재 사후적관리의 추가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Garry Bowditch, 2008)

3.2 영국의 사후적관리 실태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정책과 수행사례 및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몇몇 부처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설에 추진되어지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도 최근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관리에 관한 규정을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되어진 이익의 공유부분까지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후적관리방안의 적극적인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자금재조달 사례로 Norfolk & Norwich Hospital, Darent Valley Hospital, Fazakerley Prison 등 3건의 사업을 통해 자금재조달 전, 후의 투자자의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아래 표2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Kevin Hanlon, 2008).

표2. 영국 사례 비교

사업명	자금재조달 전 내부수익률(IRR)	자금재조달 후 내부수익률(IRR)	비교 (배)
Norfolk Hospital	16%	60%	3.75 ↑ (275%)
Darent Hospital	23%	56%	2.44 ↑ (144%)
Fazakerley Prison	16%	39%	2.44 ↑ (144%)

(출처: Kevin Hanlon 2008)

위 표에서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내부수익률은 투자한 모든 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화폐가 벌어들인 수익의 비율을 말하며, 위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은 투자자의 내부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Norfolk Hospital은 자금재조달 후의 내부수익률 증가비율이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PFI사업에 있어서의 자금재조달 후 얻는 수익으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적절히 분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관리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3 국내 사후적관리 실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과 현재 상황은 앞서 언급 하였으므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적용된 3건의 사례인 신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이 3건의 사례 모두 도로공사에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사후적관리를 도입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국내 사례에 사후적관리 방안으로 사용된 자금재조달은 모두 초기 출자자의 지분변경, 자본금의 감소가 후순위차입으로 대체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표3. 국내 사례 비교

	구 분	기 존	변 경
신 공항 고속 도로	주주 구성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삼성생명 등	교원공제, 교보생명 우리은행 등
	운영수 입보장	추정수입의 90%까지 보장	추정수입의 80%보장으로 변경
	자본 구조	자기자본비율 29.7%	자기자본비율 15.0%
	후순위 대출	-	14.7%
광주 제 2 순환 도로	주주 구성	대우(최대주주), 아남건설, 신한 등	신한 맥쿼리 등
	운영수 입보장	추정수입의 90%까지 보장	추정수입의 79.8%까지 보장
	자본 구조	자기자본비율 21.8%	자기자본비율 17.1%
	후순위 대출	-	21.7%
천안 논산 고속 도로	주주 구성	한화건설, 금호산업 대우건설, LG건설 등	KRIF, 연기금 금융기관, 대우건설
	운영수 입보장	90%까지 보장	82%로 변경
	자본 구조	자본금: 38.0%	자본금: 12.3%
	후순위 대출	-	25.7%

(출처: 국회예산서 2006)

출자자의 지분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주요 출자자였던 국내 건설사들이 시설물이 완료되는 시점에 초기에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하여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여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또한 초기지분을 매수한 재무적 투자자는 건설완공과 관련된 위험이 건설이 완료된 후 인계함으로써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주무부서 간에 체결한 최소수익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순위채가 초기단계에는 없다가 자금재조달 시점에 도입되는 이유는 자본금의 일부를 후순위채로 대체하여 법인세 절감으로 인한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키고 운영초기에 후순위채 이자를 통한 초기 수익 실현에 있다고 판단된다(김홍수·이영찬, 2004). 한편 지분매각의 승인권자인 주무관청은 최소운영수익보장을 축소함으로써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에 대한 정부의 이익공유가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 부족과 사업추진 주체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비율 또한 단순히 50 : 50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참여 주체별 기여도에 따른 이익공유비율을 산정하여 자금재조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왕세종, 2004))

3.4 국·내외 사후적관리 실태 비교 분석

위 각국의 민간투자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호주는 민간투자사업이 일찍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성숙된 사후적관리방안은 아직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사후적관리의 사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영국과 국내의 사후적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 방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후적관리가 도입된 전체 사업 중 대다수의 사업에 자금재조달 방법이 사용되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양국 모두 추가재협상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업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라 추측되어지며, 또 다른 사후적관리 방법인 통합 운영시스템의 활용 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금재조달 방법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양국의 자금재조달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내 자금재조달은 자기자본수익률(ROE*)을 이익산정의 기준으로 하며 초기 출자자의 지분변경, 자본금 감소, 후순위차입 등 초기투자지분의 변경을 통해 자금재조달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영국의 자금재조달은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초기투자자의 수익증대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3.5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적용 방안

먼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후적관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민간투자사업 중 건설 완공된 사업의 증가로 인한 사후적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늘어났으며, 둘째, 초기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경험 부족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초기계약이 부실하다는 것에도 이유를 들 수 있다. 셋째, 건설완공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사업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초기건설 기간에 비해 운영 및 유지 기간 동안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 또한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민간투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협약 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운영 및 유지 기간에 있어서의 정보 및 관리시스템의 집중화도 요구된다. 또한 자금재조달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도 현재 이익공유 기준 보다 더 구체적인 이익측정 방법 및 공유방식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관리가 더 쉽게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결론

* ROE: 투자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시장의 증가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사후적관리 방안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보았다.

첫째,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과 변화과정 및 그 특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사후적관리 방법들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후적관리 방법 중 자금재조달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넷째,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300건이 넘게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져 왔으며, 그 중 많은 사업들이 운영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금까지의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선정 및 사업유치 등과 같이 “사업초기단계”에 사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후적”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리의 효율화와 추가재협상 및 자금재조달과 같은 추가적인 관리방안이 더욱 부각되어질 것이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사후적관리방안의 대부분이 건설 완공 후 초기위험이 사라져 초기 투자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과,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로 인한 재원조달 조건변경의 이유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후적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운영단계에 있는 많은 사업에 적용되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되어야 하며 연구 초기단계인 자금재조달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금재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황선웅, “Project Financing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에 따른 효과 분석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재무관리논총, 제12권 제1호 2006. pp19-44
2. 이두현,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학회논문집, 제23권 제3호 2007. pp. 113-120
3. 국회예산처, “민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재조달 사후평가” 연구보고서, 2006
4. 왕세중,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의 과제”, 이슈진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5. Kevin Hanlon, “Concession Renegotiation and Project Refinancing in Practice in Eng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about Ex-post Management and Renegoti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2008
6. Garry Bowditch, “Identifying Best Practice Ex-post Management System in PPP-Australian Experiences-” International Conference about Ex-post Management and Renegoti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2008
7. 김홍수·이영찬, “민자사업의 재차입계약 어떻게 볼 것인가”, 국토정책 브리프 제60호, 국토연구원, 2004
8.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008-1호

Abstract

In the current Public-Private Partnership, Applying Ex-post management is rising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So, Advanced countries of construction are getting additional profit from Re-financing while repairing system about Re-financing. But within the our country positive introduction is difficult because of insufficient of social sympathy about Re-financing, shortage of support from government and imperfection of detail regulation. So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Ex-post management Which are appli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is adopted by project financing in domestic and overseas field and considers plans which can apply more efficiently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We anticipat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materials that can help people who want to understand hereafter introduction of Ex-post management in domestic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xpect that the materials can be used for data developing system of Ex-post management.

Keywords : Public-Private Partnership, Ex-post management, Re-financing
